보도시점 (전매체) 6. 11.(일) 20:00

제2 중동신화의 서막, 한-사우디 공동기금(펀드) 조성

- 윤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 회담('22.11월)의 성과로 이번에 1억 6천만 달러 규모 공동기금(펀드) 결성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(현지시간) 6.11(일)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 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장관과 사우디 중소기업은행(SME Bank) 이사회 의장 요세프 알 베냔(Yousef Al Benyan)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기금(펀드)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

양국 공동기금(펀드) 조성은 '22.11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「한-사우디 투자협력 및 창업기업(스타트업)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해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.

이영 장관도 올해 1월 다보스 공개 토론회(포럼), 지난 3월 사우디 방문에 이은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투자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인사들과 공동기금(펀드)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.

공동기금(펀드)은 사우디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조성중인 1억 5천만 달러 (1,954억원) 규모의 기금(펀드)에 한국벤처투자가 1천만 달러(130억원)를 출자하여 총 1억 6천만 달러(2,084억원) 규모의 기금(펀드)를 조성하는 것으로, 사우디벤처투자(SVC), 사우디국부기금(펀드)(PIF Jada)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.

공동기금(펀드)은 한국기업에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양국 간 합의했다.

이영 장관은 "한-사우디 공동기금(펀드) 조성을 계기로 우리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이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, 제2의 중동신화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기금(펀드)를 포함한 26개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제,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.

담당 부서	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동 (044-204-771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한-사우디 공동펀드 체결식 등 참고자료

□ 공동펀드 체결식

o **(일시/장소)** 6. 11(일), 14:00~16:00, 리야드 크라운프라자 호텔

o **(참석)** 한국 이영 장관, KVIC 대표, 사우디 SME Bank 이사회 의장, SVC 대표

* (SME BANK 이사회 의장) Yousef Al-Benyan, (SVC 대표) Nabeel Koshak

<사우디 SME BANK 이사회 의장 프로필>		
성명	요세프 알 베냔(Yousef Al-Benyan)	
주요경력	o 現 SME Bank 이사회 의장 ('23~) o 現 사우디 교육부 장관 ('22~) o 前 SABIC CEO ('15~'22) * '20년 포브스誌 선정 세계 100대 CEO 선정	

o **(주요행사) 공동펀드 체결식,** 양자면담 등

- 펀드체결식 : 한국 이영 장관-사우디 SME Bank 이사회 의장 임석하에 한국벤처투자(KVIC)와 사우디벤처투자(SVC) 대표 간 서명

□ 사우디 중소기업은행 (SME Bank) 및 사우디 벤처투자 (SVC)

○ 사우디 중소기업 은행 : '22.12월에 설립된 사우디 중소기업 지원전문은행

- 이사회 (의장 등 6명 구성) 의장 : 요세프 알 베냔(Yousef Al-Benyan)

- 향후 3년간 사우디 중소기업 지원 위해 $2.97B(4조원) 투자

○ 사우디 벤처투자 : '18년 설립한 정책금융기관, 중동 지역 450여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포함한 사우디 Vision 2030에 기여 (SME Bank 산하기관)

- CEO : Nabeel Koshak

□ 한-사우디 투자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(MOU)

○ 한국 KVIC - 사우디 SVC 체결 ('22.11.17, 한사우디 투자포럼)

○ 주요내용 : ① 공동펀드 조성, ② 양국 스타트업 교류, ③ 투자전략·정책관련 정보 교류 등